

## 주택 소유 및 아파트 거주에 따른 19~39세 여성의 출산: 제 8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복합표본분석

양미란, 홍진<sup>\*</sup>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Childbirth by Housing Ownership and Apartment Residence in Women Aged 19-39 Years: A Comprehensive Sample Analysis Using the 8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Miran Ynag, Jineui Hong<sup>\*</sup>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혼부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출산율 증진 및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주택소유 및 아파트 거주여부가 19~39세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연구는 2019~2021년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22,599명 중 19~39세 여성 2,311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택보유 개수에 따라서는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 (OR 1.692, 95% CI: 1.097-2.609)가 출산가능성이 높았다. 아파트 거주여부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가능성이(OR 1.888, 95% CI: 1.181-3.018)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해 주택 소유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청년층이 감당 가능한 가격의 아파트를 청년층, 결혼을 계획한 층, 신혼부부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입지가 좋은 곳(출퇴근, 교육)에 대량으로 어떻게 공급할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Abstract** Korea's birth rate is the lowest in the world, reaching 0.81 in 2021. During the same period, newlyweds and young people encountered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 home. Thus,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and design suitable population policies for this purpose, it was believed necessary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ownership and residence in apartments with childbirth among women between 19 and 39 years of age. In this study, 2,311 women aged between 19 and 39 were shortlisted as the final study participants from the 22,599 subjects who were included i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ducted in 2019, 2020, and 202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obtained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childbirth was higher among single homeowners (odds ratio [OR]: 1.692, 95% CI: 1.097-2.609) than among non-homeowners. The probability of childbirth was higher (OR: 1.888, 95% CI: 1.181-3.018) among individuals living in an apartment than those not living in an apartment. Therefore, methods must be established to provide high-quality apartments in good locations (commuting to work, education) to larger numbers of young people, those planning to get married, and newlyweds, to enhance the birth rate.

**Keywords** : Childbirth, Fertility Rate, Housing Stability, Housing Tenure, Home Buying

본 논문은 2023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3019)

\*Corresponding Author : Jineui Hong(Gwangju Health Univ.)

Email: Hong@ghu.ac.kr

Received August 29,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Revised September 26,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출산율은 한 나라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1,2].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을 포함한 경제가 성장한 국가에서 출산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도전 받게 되었다 [3]. 이로 인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연금, 복지재원 문제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력난, 경제 활력 감소,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2,4,5].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등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7]. 특히 2015년도 이후에는 결혼을 한 여성의 출산율이 출산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8]. 출산율의 저하문제는 오래된 이슈로서 2005년 저 출산 고령화 사회법을 시적으로 수많은 대책을 내 놓았고, 47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6,9].

특히, 대부분의 출산은 19~39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연령대의 출산 여부가 국가 전체적인 출산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 [7].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은 지속적 하락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해당연령대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0,11]. 최근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로 2.05명이라고 응답하였고, 희망 자녀수는 1.61명으로 응답했다 [11]. 이 수치는 실제 출산율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생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무엇이 만들어내는지 해당연령대의 여성과 주위를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 주관적 자기인식, 경제적 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하여 장애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우리나라의 경우 탄탄한 직장이 있거나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은 드물고 대부분은 결혼한 후에 출산을 하고 있는 것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과의 차이로 알려져 있다 [9,12,13].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례에서도 주거비용 및 안정성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특히 한국의 경우 집에 대한 애착이 큰 경향이 있고, 전통적으로 내 집 장만이 최우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수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15].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16]. 특히 출산율을 증진하고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이런 맥락에서 주택소유 및 아파트 거주여부와 19~39세 여성의 출산과의 관련성을 탐구함으로써 출산율 증진 및 인구정책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14].

본 연구는 2019~2021년도에 시행된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합표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국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출산율 감소가 심했던 기간의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들이 놓칠 수 있는 편향성과 한계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19~39세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특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 및 아파트 거주여부 등의 주거요인과 출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19~39세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19~39세 여성의 출산 여부와 주택소유 및 아파트 거주여부와 관련성을 확인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39세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특성 및 출산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성이며, 이 연구에서 선정한 표본은 2019년~2021년도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중 19~39세 여성이다. 2019~202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는 22,599명이고 이중 남성 10,354명, 19세 미만 및 40세 이상 2,563명, 출산정보에 결측치가 있는 252명을 제외한 2,311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 2.2 연구 변수

####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거주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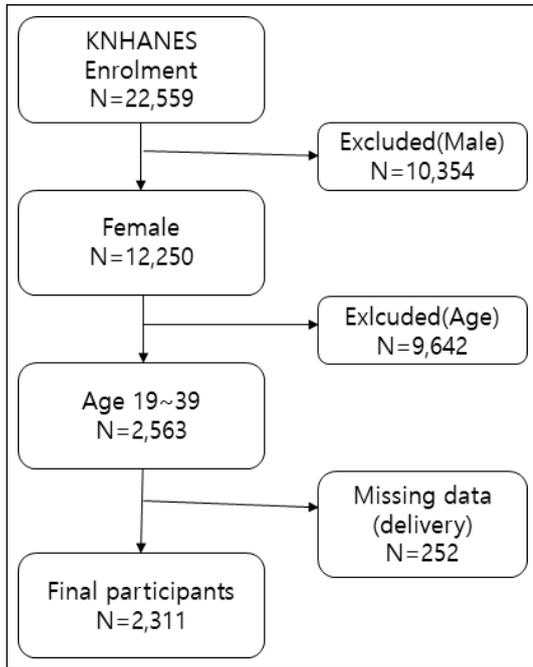


Fig. 1. Flowchart of the enrollment process

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국내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나이는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여부는 미혼이면 no, 기혼이면 yes로 분류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 등 3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2.2.2 경제상태 및 주관적 인식

가구소득수준은 하, 중하, 중상, 상 등 4분위로 분류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연구대상자인 여성의 응답시점 경제활동 여부로서 no, yes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내용을 변수화 하였다. 주관적 체형 또한 매우 마름, 마름, 보통, 비만, 매우비만 등 응답한 내용을 변수화 하였다.

### 2.2.3 주거상태 및 출산여부

주택보유개수는 무주택, 1주택, 2주택이상 등 3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아파트 거주여부는 no와 yes로 분류하였다. 출산여부에 응답한 대상자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시점 이전에 출산경험이 있으면 유, 없으면 무로 분류하였다.

## 2.4 자료 분석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2019년~2021년도에 실시된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2,559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합표본설계에 따른 가중치, 층화, 조사구를 등을 적용하여 IBM SPSS/WIN 26 version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출산을 경험한 19 ~ 39세 여성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기술통계 및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19~39세 여성의 출산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생성되고 익명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연구로서, 연구윤리를 준수가 가능하다.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자 등록을 완료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19~39세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특성

최종 연구대상자는 2,311명이고 복합표본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6,705,262명이였다. 서울의 출산경험여성이 23.7%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은 47.4%로 가장 많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19~24세는 1.3%만이 출산경험이 있으며, 35~39세는 78%가 출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한 경우 78%가 출산경험이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가 65.5%, 고졸이 25.9%, 대졸이상인 37.8%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 40.2%, 소득수준이 상인 경우 27.4%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42.6%,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28.4%였으며 주택보유 개수에 따라서는 1주택이 35.2%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 거주여부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살 경우 41.4%가, 그렇지 않은 경우 21.8%가 출산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체형에 있어서 비만할수록 출산경험(38.6%)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1).

### 3.2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19~39세 여성의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

각 요인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주지기준 서울을 기준으로 제주도만이 OR 5.32(1.230-23.083)으로 출산가능성이 높았다. 연령은 19~24세를 기준으로

Table 1. Study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nd chi-square analysis

Variables	Categories	N	unweighted (N=2,311)		weighted (N=6,705,262)		X <sup>2</sup> (p)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N (%)	N (%)	N (%)	N (%)	
(Total)		2,311	1,441 (62.4)	870 (37.6)	4,406,511 (65.7)	2,298,750 (34.3)	
Residential area	Seoul	583	428 (73.4)	155 (26.6)	1,179,030 (76.3)	366,857 (23.7)	40.728 (0.129)
	Busan	126	75 (59.5)	51 (40.5)	242,962 (62.4)	146,180 (37.6)	
	Daegu	78	46 (59.0)	32 (41.0)	179,563 (62.0)	109,989 (38.0)	
	Incheon	143	88 (61.5)	55 (38.5)	245,234 (62.5)	146,978 (37.5)	
	Gwangju	79	43 (54.4)	36 (45.6)	132,147 (60.2)	87,378 (39.8)	
	Daejeon	66	40 (60.6)	26 (39.4)	153,740 (66.0)	79,148 (34.0)	
	Ulsan	48	23 (47.9)	25 (52.1)	73,317 (52.6)	65,956 (47.4)	
	Sejong	60	35 (58.3)	25 (41.7)	48,408 (69.1)	21,606 (30.9)	
	Gyeonggi	615	399 (64.9)	216 (35.1)	1,129,467 (63.5)	648,721 (36.5)	
	Gangwon	59	32 (54.2)	27 (45.8)	98,633 (67.0)	48,617 (33.0)	
	Chungbuk	54	30 (55.6)	24 (44.4)	129,570 (62.2)	78,693 (37.8)	
	Chungnam	72	32 (44.4)	40 (55.6)	135,600 (56.3)	105,076 (43.7)	
	Jeonbuk	55	34 (61.8)	21 (38.2)	129,750 (68.2)	60,586 (31.8)	
	Jeonnam	51	27 (52.9)	24 (47.1)	103,371 (62.5)	61,950 (37.5)	
Gyeongbuk	84	41 (48.8)	43 (51.2)	177,480 (61.9)	109,150 (38.1)		
Gyeongnam	96	48 (50.0)	48 (50.0)	202,602 (60.7)	130,930 (39.3)		
Jeju	42	20 (47.6)	22 (52.4)	45,638 (59.6)	30,934 (40.4)		
Age	19~24	597	9 (98.5)	588 (1.50)	1,810,827 (98.7)	24,116 ( 1.3)	967.693 (0.000)
	25~29	482	424 (88.0)	58 (47.0)	1,414,890 (87.0)	211,326 (13.0)	
	30~34	502	266 (53.0)	236 (47.0)	793,295 (53.6)	686,618 (46.4)	
	35~39	730	163 (22.3)	567 (77.7)	387,498 (22.0)	1,376,690 (78.0)	
Marriage	No	1,249	1243 (99.5)	6 ( 0.5)	3,816,554 (99.6)	16,599 ( 0.4)	1568.594 (0.000)
	Yes	1,062	198 (18.6)	864 (81.4)	589,957 (20.5)	2,282,151 (79.5)	
Education	≤middle	55	14 (25.5)	41 (74.5)	54,961 (34.5)	104,441 (65.5)	56.983 (0.000)
	high	773	566 (73.2)	207 (26.8)	1,734,493 (74.1)	605,344 (25.9)	
	University≤	1483	861 (58.1)	622 (41.9)	2,617,057 (62.2)	1,588,965 (37.8)	
Income	Low	563	320 (56.8)	243 (43.2)	1,003,190 (59.8)	674,335 (40.2)	35.441 (.000)
	Mid-low	571	328 (59.8)	243 (40.2)	975,620 (59.8)	655,330 (40.2)	
	Mid-high	595	392 (65.9)	203 (34.1)	1,238,792 (70.4)	519,629 (29.6)	
	High	582	401 (72.6)	181 (27.4)	1,188,909 (72.6)	449,455 (27.4)	
Job	No	928	503 (54.2)	425 (45.8)	1,601,789 (57.4)	1,187,392 (42.6)	50.191 (0.000)
	Yes	1,383	938 (67.8)	445 (28.4)	2,804,722 (71.6)	1,111,359 (28.4)	
home ownership	none	1,016	648 (63.8)	368 (36.2)	1,886,000 (66.5)	952,145 (33.5)	0.701 (0.780)
	1	1,053	636 (60.4)	417 (39.6)	2,044,976 (64.8)	1,108,776 (35.2)	
	2≤	242	157 (64.9)	85 (35.1)	475,534 (66.7)	237,828 (33.3)	
living in an apartment	No	965	664 (76.8)	201 (23.2)	1,907,333 (78.2)	531,543 (21.8)	91.448 (0.000)
	Yes	1,446	777 (53.7)	669 (46.3)	2,499,178 (58.6)	1,767,207 (41.4)	
subjective health status	Best	129	87 (67.4)	42 (32.6)	297,973 (75.7)	95,774 (24.3)	8.906 (0.128)
	good	698	433 (62.0)	265 (38.0)	1,312,134 (65.6)	688,578 (34.4)	
	normal	1,159	711 (63.9)	448 (36.1)	2,138,561 (63.9)	1,207,971 (36.1)	
	bad	300	193 (67.8)	107 (32.2)	596,977 (67.8)	283,898 (32.2)	
	worst	25	17 (68.0)	8 (32.0)	60,867 (73.0)	22,529 (27.0)	
subjective body type	very thin	45	36 (80.0)	9 (20.0)	115,515 (81.3)	26,585 (18.7)	15.652 (0.037)
	thin	253	175 (72.6)	78 (27.4)	550,545 (72.6)	207,923 (27.4)	
	normal	951	609 (64.0)	342 (36.0)	1,800,867 (66.4)	909,311 (33.6)	
	obesity	766	454 (59.3)	312 (40.7)	1,416,451 (63.2)	825,559 (36.8)	
	very obese	296	167 (61.4)	129 (38.6)	523,133 (61.4)	329,373 (38.6)	

Table 2. Multiple logistic analysis of childbirth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Multiple logistic analysis		
		OR	(95% CI)	p
Residential area	Seoul	ref.		
	Busan	1.478	(0.698-3.373)	0.353
	Daegu	2.067	(0.475-8.989)	0.333
	Incheon	1.764	(0.958-5.202)	0.304
	Gwangju	1.957	(0.533-7.187)	0.311
	Daejeon	1.378	(0.653-2.909)	0.400
	Ulsan	3.229	(0.960-10.861)	0.058
	Sejong	0.915	(0.349-2.398)	0.857
	Gyeonggi	1.656	(0.938-2.924)	0.082
	Gangwon	1.072	(0.250-4.590)	0.925
	Chungbuk	2.080	(0.215-20.167)	0.527
	Chungnam	1.250	(0.535-2.923)	0.606
	Jeonbuk	0.925	(0.256-3.343)	0.905
	Jeonnam	0.769	(0.246-2.410)	0.652
	Gyeongbuk	3.669	(0.811-16.606)	0.091
Gyeongnam	0.576	(0.142-2.328)	0.438	
Jeju	5.328	(1.230-23.083)	0.025	
Age	19~24	ref.		
	25~29	2.080	(0.605-7.152)	0.245
	30~34	5.553	(1.724-17.887)	0.004
	35~39	31.006	(9.112-105.502)	0.000
Marriage	No	ref.		
	Yes	880.976	(300.841-2579.832)	0.000
Education	middle ↓	ref.		
	high	0.482	(0.148-1.572)	0.226
	University ↑	0.287	(0.082-1.003)	0.050

Table 3. Multiple logistic analysis of births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residential variables, and subjective conditions

Variables	Categories	Multiple logistic analysis		
		OR	(95% CI)	p
Income	Low	ref.		
	Mid-low	0.492	(0.218-1.106)	0.086
	Mid-high	0.167	(0.073-0.383)	0.000
	High	0.131	(0.057-0.301)	0.000
Job	No	ref.		
	Yes	0.664	(0.416-1.061)	0.087
home ownership	none	ref.		
	1	1.692	(1.097-2.609)	0.017
	2≤	1.991	(0.872-4.548)	0.102
living in an apartment	No	ref.		
	Yes	1.888	(1.181-3.018)	0.008
subjective health status	Best	ref.		
	good	0.517	(0.213-1.258)	0.146
	normal	0.498	(0.217-1.142)	0.100
	bad	0.353	(0.140-0.892)	0.028
	worst	0.092	(0.015-0.567)	0.010
subjective body type	very thin	ref.		
	thin	0.828	(0.219-3.128)	0.781
	normal	0.971	(0.282-3.341)	0.963
	obesity	0.904	(0.258-3.167)	0.875
	very obese	0.854	(0.233-3.132)	0.812

30~34세는 OR 5.553(1.724-17.887), 35세~39세는 OR 31.006 (9.112-105.502)로 확인되었다. 미혼에 비해 기혼자의 출산이 OR 880.976(300.841-2579.832)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라 증졸이하에 비해 고졸은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졸이상의 경우 OR 0.287(0.082-1.003)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하인 그룹에 비해 중상 (OR 0.167, 0.073-0.383), 또는 상 그룹(OR 0.131, 0.057-0.301)이 출산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경제상태, 주거형태, 주관적 상태가 19~39세 여성의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 여부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보유 개수에 따라서는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 (OR 1.692, 1.097-2.609)가 출산가능성이 높았다. 아파트 거주여부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가능성이(OR1.888, 1.181-3.018)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에 비해 나쁨(OR 0.353, 0.140-0.892)과 매우 나쁨(OR 0.092, 0.015-0.567)에 응답한 경우 출산가능성이 낮았다. 주관적 체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 4. 논의

이 연구에서는 19~39세 여성의 출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주택보유와 아파트 거주 여부와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연령, 혼인여부 등의 요인과 출산과의 관련성은 통상적인 인식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경험이 증가하는 것은 살아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출산의 기회가 더 높고, 평균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10]. 결혼여부에 따라 출산가능성이 약 880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서구에서는 결혼이 아닌 동거 등의 결합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출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12].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싱글이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후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친다 [11]. 따라서 만남 및 연애의 장애요인, 결혼의 장애요인, 이후 출산의 장애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5년

이후로는 결혼한 여성의 출산을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8]. 더불어 기존 혼인제도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 등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17].

교육수준과 출산 간의 관련성에서는 대졸 이상의 여성들이 출산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10]. 높은 교육 수준의 여성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커리어 관리에 몰두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3,9,14]. 육아휴직 등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 수준과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14].

주관적 건강 상태와 출산 간의 관련성에서는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 출산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 변수는 실제 유병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명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질병상태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관적인 상태만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 건강상태를 일정이상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임신전 건강검사,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한 상태에서 출산을 선호하는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8]. 즉 산모의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일이라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18].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미루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적 요인의 대표적인 지표인 가구 소득수준과 출산 간의 관련성에서는 소득이 낮은 그룹일수록 출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만 저소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으며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3,9].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가능성이 낮았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9].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자면 고소득층의 경우 생활수준의 유지,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14]. 따라서 고소득층은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보유 개수와 아파트 거주 여부는 출산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1주택을 보유하거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14]. 즉 임대보다는 자가 소유의 주택이 전세와 월세보다 주거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 월세 또는 전세와 같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구보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정의 출산 확률이 16.2% 높았고, 특히 둘째 자녀 출산은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1]. 또한 아파트 외의 주거형태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춘 가정에서 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16].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는 경제적인 요인에서 소득수준보다는 주거의 안정성, 특히 아파트와 같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정을 꾸렸을 경우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부의 소득 증가에 비해 주거비와 교육비 등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더 빠르게 상승되는 것과 관련이 될 수 있다 [22]. 특히 과거와 달리 집이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구매력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2].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서는 주거비 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출산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아파트를 구매력에 맞춘 가격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또한 아파트라는 존재만의 특성이 있다. 구시가지가 아니라 주로 택지개발 또는 재개발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공급과 함께 주변 환경이 쾌적해지고 편리하게 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3,24].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는 '초품아'라는 용어가 있다 [23]. 그 뜻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라는 의미인데, 초등학교의 접근성, 안전성이 주거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1명이 아니라 2명이상의 출산을 위해서는 주거의 공간의 면적이 증가되어야 한다 [13].

최근 10여 년간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도심에는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공급되었다 [25,26]. 그러나 다음단계로 이행하려면 가정을 꾸릴만한 규모의 주택공급이 늘어야 하며, 특히 주택 크기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정도는 되어야 2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주택의 구입과, 아파트의 거주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선

행논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채의 규모와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나 구입한 주택의 가격 상승, 월 이자 및 상환금액의 부담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에 첫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초장기 모기지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13]. 아무리 장기의 저금리라고 해도 구매주택의 절대적인 가격 또한 중요하므로 청년층이 감당 가능한 가격의 아파트를 청년층, 결혼을 계획한 층, 신혼부부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입지가 좋은 곳(출퇴근, 교육)에 대량으로 어떻게 공급할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주거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게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자원의 집중공급이 필요함을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만이 변수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일자리 등의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잠재적인 요인들을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7]. 또한, 데이터가 연구 대상자들의 자가 보고에 의존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단면연구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집단자체의 학력구성이 편향되어 있어 표본에서도 동일한 편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한 학력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활사적 사건으로서 몇 가지의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정말 다양한 관점과 요인들을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주제이다 [3]. 연령,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자녀수, 가족가치관, 보육환경, 출산정책 등이 출산의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3,28].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구의 주거부담이 주요 영향요인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택의 유형과 주택의 보유 여부만 확인하여 주거부담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단위의 표본 데이터에서 주거와 출산의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점, 주택 소유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했다는 점, 특히 주거 형태에 있어서 아파트의 거주가 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 5. 결론 및 제언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삶이 담긴 공간으로서 단순히 재산으로서의 가치 이전에 정말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곳이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중요한 사실은 주택의 소유여부와 거주주택의 형태가 아파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출산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가정을 이루는데, 출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출산율을 정상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실 정책을 세울 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째는 원인이 파악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해결방안을 알더라도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은 단순히 재료와 공장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는 없고, 토지와 건설자재와, 기술, 막대한 노동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이 지나면 아무리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들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파격적인 아파트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 Park, C. G. Park, "Demographic Changes and Policy Tasks in Korea", *Panel for Korean Economic Analysis*, Vol.23, No.2, pp.47-87, April, 2017, DOI: <https://doi.org/10.22823/ikea.23.2.201708.47>
- [2] J. M. Park, H. J. Park, S. K. Lee, "The Roles of the Quality of Life and Perceived Social Qualities on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53, No.4, pp.47-87, 2022,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22.53.4.33>
- [3] G. Bae, "The Factors Affecting Childbirth and Childbirth Abandonment of Married Women", *Culture and Convergence*, Vol.44, No.7, pp.777-791, 2022, DOI: <https://doi.org/10.33645/cnc.2022.7.44.7.777>
- [4] H. Chin. Social Awareness of Population Issues and Its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pp.69-86, DOI: <https://doi.org/10.23062/2021.03.6>
- [5] J. Y. Lee, "A Study on the Structural Causes of Local Extinction in Japan: Focusing on Collective Employment and the Population Movement during the High Economic Growth Period",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57, No.1, pp.5-33, 20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O02963764>
- [6] S. Lee. Policy Monitoring and Task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pp.7-20, DOI: <https://doi.org/10.23062/2023.03.2>
- [7] S. H. Yoo,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of Fertility in South Korea: Estimating and Projecting Completed Fertility",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Vol.27, No.1, pp.29-55, 2022, DOI: <https://doi.org/10.22886/jkos.2022.27.1.29>
- [8] B. Key, S. H. Yoo, S. Choi, "Trends in Marital Fertility, 2005~2020: Duration-Based Approac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45, No.4, pp.71-92, 2022, DOI: <https://doi.org/10.31693/KJPS.2022.12.45.4.4>
- [9] J. J. Yang, W. Y. Jang, "Policy Mix to Overcome Ultra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32, No.2, pp.33-55, Jun. 2023, DOI: <https://doi.org/10.33900/kaps.2021.32.2.2>
- [10] I. Chang, Childbearing Characteristics in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pp.35-47, DOI: <https://doi.org/10.23062/2022.06.4>
- [11] S. Choi, B. Kye.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Change during the COVID-19, KDI School of Pub Policy Management Paper, Korea, pp.1-21, DOI: <http://dx.doi.org/10.2139/ssrn.4349496>
- [12] B. H. Lee, "Analysis of Comparative Legal Trend in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arding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including Registered Partnerships",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6, No.2, pp.537-615, Jun. 2020, DOI: <https://doi.org/10.38131/kpili.2020.12.26.2.537>
- [13] S. Oh, I. Jang,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1, No.3, pp.298-317, 2021, DOI: <https://doi.org/10.15709/hswr.2021.41.3.298>
- [14] S. H. Hong, "Factors Related to the Willingness to have a Child, Parental Age at First Child's Birth, and the Planned Number of Children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Vol.24, No.2, pp.69-87, 2020, DOI: <https://doi.org/10.22626/jkfrma.2020.24.2.004>
- [15] K. Atalay, A. Li, S. Whelan, "Housing wealth, fertility intentions and fertility",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Vol. 54, No 101787, 2021, DOI: <https://doi.org/10.1016/j.jhe.2021.101787>
- [16] H. J. Bae, "The Effects of Housing Affordability on Childbirth : Focusing on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50, No.1, pp.35-70, 2019, DOI: <http://doi.org/10.16999/kasws.2019.50.1.35>

[17] S. Kim, "A Socio-psychological Approach to Low Fertility: Who Can't, and Why Can't They Dream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Survey Research*, Vol.23, No.2, pp.1-33, 2022.  
DOI: <https://doi.org/10.20997/SR.23.2.1>

[18] H. Y. Min, G. H. Jeong, "Advanced Aged Women's Need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Car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1, No.4, pp.332-341, 2015.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5.21.4.332>

[19] H. Joo, S. S. Lim, "Effect of parental characteristics on fertility rates", *Journal of Korea Regional Economics*, Vol.20, no.3, pp.51-65, 2022.  
DOI: <https://doi.org/10.34282/krea.2022.20.3.3>

[20] J. S. Yoo, "The Effect of Residence Type on Marriage and Childbirth, Policy Proposal Report, Research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pp.1-28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EXT\\_BBS\\_messageId=356086](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EXT_BBS_messageId=356086)

[21] H. S. Shin, E. C. Chung, "An Analysis on Effects of Housing Tenure on Childbirth of Newly-married Households", *Housing Studies Review*, Vol.29, No.1, pp.5-32, 2021.  
DOI: <http://dx.doi.org/10.24957/hsr.2021.29.1.5>

[22] J. H. Lee, J. B. Park, "The Effects of the Housing Price and Provision on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eou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9, No.5, pp.765-776, 2020.  
DOI: <https://doi.org/10.5934/kihe.2020.29.5.765>

[23] Y. Kang, J. Y. Suh, "A Study on the Valuation Ratio of Brand in Real Price - A Case Study of Udong and Banyeodong in Busan Metropolitan City -",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Vol.52, No.1 pp.93-120, 2020.  
DOI: <https://doi.org/10.35526/srd.2020.52.1.005>

[24] P. Cho, E. Y. Kim,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Public Land Law Review*, Vol.90, pp.23-46, 2020.  
DOI: <http://dx.doi.org/10.30933/KPLLR.2020.90.23>

[25] S. Eom, S. Y. Lee, "Analysis on the Housing Needs for Young Adults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7, No.2, pp.77-85, 2018.  
DOI: <http://dx.doi.org/10.14774/JKIID.2018.27.2.077>

[26] H. S. Hong, M. G. Lee, H. Kim, D. Kim "Study on the Housing Status and Satisfaction Analysi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2030 Generatio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Real Estate Review*, Vol.32, No.4, pp.63-79, 2022  
DOI: <https://doi.org/10.35136/krer.32.4.5>

[27] C. Lee, "Effect of Job Quality on Marriage and Fertility: Influences of Local Manufacturing Employment Share", *Journal of Korean Economy Studies*, Vol.41, No.2, pp.5-34, 2023.

DOI: <https://doi.org/10.46665/jkes.2023.6.41.2.5>

[28] S. K. Un, H. J.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Married Women's Intention of Childbirth",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4, pp.210-217,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4.210>

양 미 란(Miran Yang)

[정회원]



- 2016년 2월 : 호남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21년 8월 : 경상국립대학교 임상간호학 박사
- 2021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학, 간호교육

홍 진 의(Jineui Hong)

[정회원]



- 2019년 8월 :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21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12년 1월 ~ 2021년 8월 : 한양대학교병원 간호사
- 2021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빅데이터, 공중보건